제15기 포천시 女性大學 개강

직장인 참여를 위한 야간반 운영 눈길

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지부장 박영실) 회원들이 제15기 여성대학 개강식 축하공연에서 경기민요를 부르고 있다.

포천시는 7일 여성회관 청성홀에서는 수강생과 교육강사, 시 관계자 등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기 여성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각 과목별 27명의 강사들에게 대한 위촉장을 수여와 박윤국 포천시장의 대회사와 이중효 포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의 축사, 강사소개, 축하공연, 과목별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됐다.

박윤국 시장은 "평생교육의 시대에 여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취미와 소양교육 그리고 전문기술교육에 충실히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뛰어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여성회관이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에는 여성대학 운영을 취미교양 중심에서 기술교육 중심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15기 여성대학은 오는 4월말까지 16주 동안 ▶한식 및 양식 조리사, 미용, 제과제빵 등의 자격증반과 ▶메이크업, 홈패션, 컴퓨터 등의 기술교육반 ▶외국어회화, 교양한문 등의 교양교육반 ▶수지침, 서예, 생활도자기, 꽃예술 등의 취미교육반 등, 47개 과목 58개 반으로 운영되며, 모두 650여명의 수강생들이 매주 한두 차례씩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생활요리, 메이크업, 요가, 영어회화, 차밍디스코, 사군자, 일본어회화 등은 직장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야간 반으로 운영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우리동네를 말한다 ⑭

포천동 신읍5통 통장 이운영

"무엇이든 和合으로 해결합니다"

화합을 마을 발전의 미덕으로 삼고 있는 이운영 통장.

신읍5통은 대표적으로 포천고등학교와 한국전력이 위치한 포천시내 마을이다.

"포천의 중심에 있지만, 논과 밭이 1/4를 차지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농촌과 도시의 중간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신읍5통의 통장과 포천동 통·리장연합회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운영(54·사진) 통장은 마을을 도·농복합의 전형적인 모델로 소개했다.

이 마을의 옛지명은 원모루로 알려져 있다.

이 통장에 따르면 "원모루는 모퉁이라는 뜻도 있지만, 옛날 원님들이 말에게 여물을 먹이고 재우고 갔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또 "마을이 지금보다는 규모가 더 컸다"며 "군 시절과 시 승격때 9통과 11통이 분리되어 현재의 5통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신읍5통은 현재 321세대 714명의 인구를 구성, 원주민은 40여가구가 주거하고 있으며, 농가 세대가 20여 세대정도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상업이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98년부터 7년간 마을일에 앞장서고 있는 이 이장은 경로당을 신축한 것이 마을의 가장 경사스런 일이었다고 말했다.

"술한 사연속에서 경로당을 새로 지었다"며 "30평의 마을회관은 이제 마을 주민들의 안식처로 손색없을 정도"라며 그 동안의 어려웠던 점을 털어 버렸다.

이 통장은 "마을이 포천도심에 속하다 보니 마을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처음에는 주민들을 이끄는데 애로가 많았다"며 "신규·외지인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척사대회나 왕방산 등반대회 등을 개최했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통장이 마을을 이끌어 가는데는 주로 원주민들이 도와준단다.

"최근에는 반상회 등 마을 주민들간의 교류를 가질 수 있는 장의 마련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서로가 얼굴보면서 정(情)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통장은 주민들의 '친목회'중심의 모임 패턴에 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웃에서 무슨일이 있으면 서로 도움을 주던 것이 옛 풍속인데, 최근에는 친목회 단위로 경조사를 챙기다 보니 이웃간의 인정 역시 같은 이유로 사라져 간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 통장은 벌써부터 한해 동안 마을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1월 척사대회를 시작으로, 봄에는 왕방산 건강산행과 가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다.

신읍5통은 이 통장을 중심으로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가 서로 긴밀한 협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마을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전통과 현실이 공존해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통장은 포천시의 도시계획에 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십 수년간 도시계획세금을 꼬박꼬박 징수해간 시에서 20년전 계획된 도로를 이제서야 마을에 만들어 준다는 것"이 불만이다. "주민들의 생각에는 시가 큰 규모의 사업을 많이 벌이면서 일상에 필요한 도로건설 등"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를 희망한다.

이 통장은 마을에 새로운 사업을 들여오고 벌이는 것에 관해서는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마을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것 보다는 서로 양보하면서 타 마을에도 양보할 줄 아는 미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 통장은 마지막으로 "마을을 지나는 우회도로가 하루 속히 착공돼, 주민들이 조금더 편하게 생활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신생아 출산장려축하금 지원 해요"

올해 1月1日이후 태어나는 둘째이후

포천시는 지난 4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생아 출산장려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는 둘째 이후 신생아 전원으로, 둘째 아기에게는 20만원을, 셋째 아기부터는 40만원을 지원한다.

단, ▲부모가 아기출생 전에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신생아도 포천시에 신규 주민등록을 해야하며, ▲아기 출생일로부터 부모와 아기가 6개월 이상 계속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포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부족분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자는 신생아 신규 주민등록 후, 소정의 신청서와 통장 계좌번호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포천시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주민등록을 조회한 후, 1주일 이내에 축하금을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단, 아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축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낳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는 2003년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생산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데 따르는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자동차 공회전, 이제는 하지 맙시다!

2분이상 주정차시는 시동끄기

혹한기를 맞아 자동차 공회전이 늘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가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이 자동차 공회전을 자제해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포천시는 10분동안 공회전을 안 하면 휘발유차는 3㎞, 경유차는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2분이상 주정차시에는 시동을 꺼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과도한 공회전은 오히려 엔진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고, ▲재시동할 때보다 10초 동안 공회전할 때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되며 ▲오늘날의 전자제어 엔진은 추운날에도 30초 정도의 공회전만으로 운행하기에 충분한 만큼, 공회전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관내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등 48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10%가 하루 10분씩 공회전을 할 경우, 연간 244억원의 연료가 낭비되고 372t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영북면 노인회장단 환경교육 참여

영북면(면장 이문근)에서는 지난 4일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포천시 건설'에 앞장서기 위해 관내 경로당 노인회장 20명을 면사무소로 초청해 면정 현황을 설명하고, 이어 지난달 8일 준공된 영북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영북면은 교육에 참가한 노인회장들에게 지역의 원로로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잘 가꾸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 후 노인회장들은 산정호수 내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상호 친목을 도모했다.

조미정 기자 cutelove7013@hanmail.net

포천시, 탈북 주민 支援한다

직업알선 및 문화적응에 중점

포천시는 정부의 탈북주민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탈북 주민들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포천시의 탈북주민 지원사업 계획은 ▶미용, 요리, 자동차정비, 컴퓨터 등 사설학원의 직업훈련에 참가할 경우 월 5~10만원의 수당을 지급 ▶기업체가 탈북자를 채용하면 정부에서 급여의 50%를 지원해 주는 고용지원금 제도 적용 ▶관내 거주 탈북자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화성과 안산의 경기도립학교 입학을 알선 ▶포천상공회의소에서 제작중인 관내 업체 구인·구직 소식지를 제공해 취업 관련 소식을 알려 주고 직접 취업도 알선해 주기로 했다.

또한 ▶탈북 주민을 위한 향토유적답사 프로그램을 정례화 ▶포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대학에 무료 입학 ▶각 단체에서 실시하는 불우이웃 돕기 행사 때 우선 탈북 주민들을 연결시켜 줄 계획이다.

특히 탈북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소흘읍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 각종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포천시는 소흘읍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85가구 114명의 생활 편의를 위해 산정호수 가족호텔 철거시 발생한 가구 및 집기류 등을 탈북 주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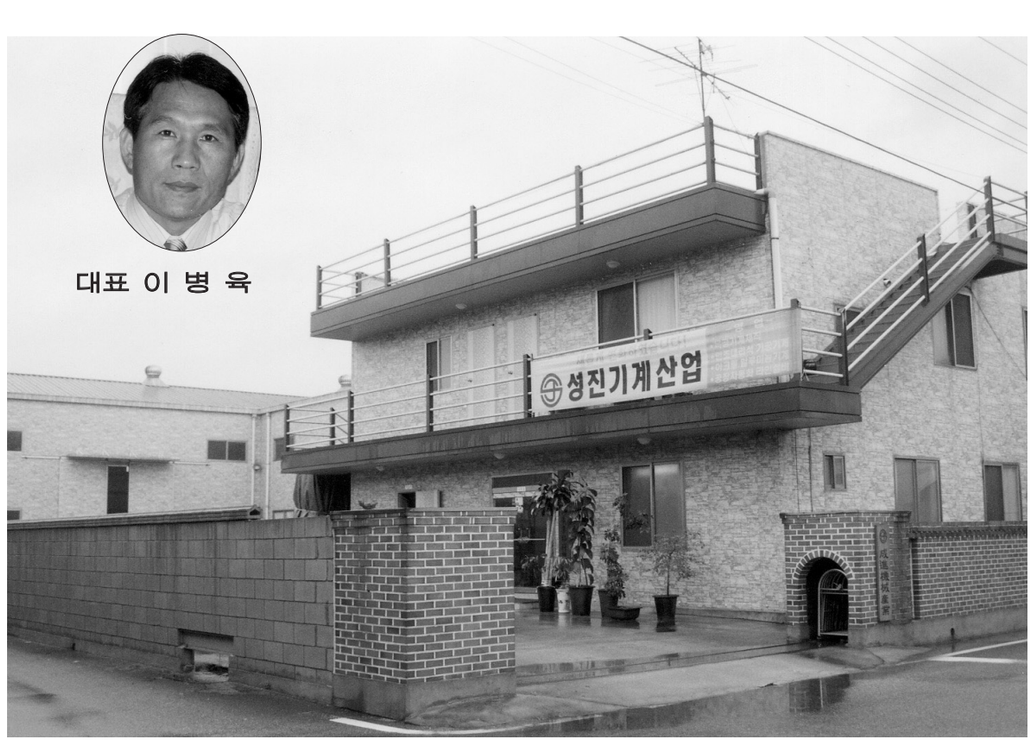
포천시는 택시공급계획에 의거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발급에 따른 면허대상자를 모집한다.

소정의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양식은 12월 22일부터 1월 20일까지 30일 동안 포천시청 민원과 또는 지역산업과 교통행정부서에서 배부하며, 접수는 1월 2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지역산업과 교통행정부서 (☎ 031-530-8292)로 문의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조대리석 가공기계의 선두주자 성진기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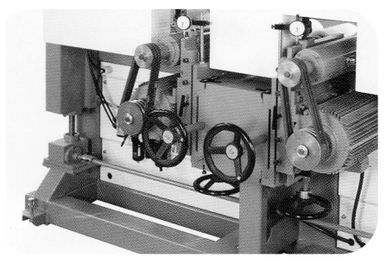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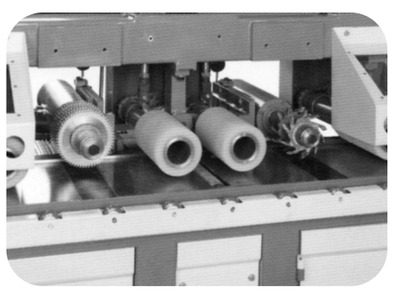
대표 이 병 육

생산품의 전문화, 고급화로 생산공정라인에 꼭필요한 전문기계를 생산, 판매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직한 기업

◆ 영 업

- 목공기계 제작전문일체 (일반기계. 특수기계)
- 목재가공 자동화라인 설비
- 인조대리석 가공기계 및 자동화 라인설비
- 알루미늄, 아크릴 가공기계 제작
- 중고기계 매매 및 알선





본사: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591-13 / Tel : 031)541-2616 ~7 , Fax : 031)541-2928 / 대표 : 이 병 육